

## 비즈 프리즘 | 현대백화점면세점, 오늘 무역센터점 오픈

# “진정한 강자는?” ... ‘유통 빅3’ 면세점 강남대전

현대백, 첫 해 7000억 매출 예상  
면세점 강남 벨트... 주변상권 기대  
명동 중심 강북벨트와 경쟁도 관심



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에 오픈하는 현대백화점면세점 9층 뷰티&패션관(왼쪽)과 10층 라이프스타일관 내 SJVP 매장.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오픈으로 '유통 빅3'인 롯데, 현대, 신세계가 면세점 '강남 벨트'를 형성하며 맞붙게 됐다.

유통산업의 꽃이라는 면세점의 '강남 대전'이 마침내 막을 올렸다.

유통업계의 빅(big) 3중 하나로 꼽히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일 서울 삼성동에 '내 여행 최고의 목적지'라는 콘셉트로 첫 면세점 매장을 오픈한다. 이로써 빅 3중 현재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삼성동 코엑스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 그리고 7월 서울 센트럴시티에 강남점을 오픈한 신세계 등과 강남을 무대로 면세점 정면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이번에 문을 연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무역센터점 3개 층(8~10층)을 리모델링했다. 면적은 1만4250㎡ 규모다. 럭셔리, 뷰티&패션, 한류 등 3대 콘셉트를 내세워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를 추구한다.

오픈에 맞춰 420여개 국내의 브랜드가 입점했는데 럭셔리 콘셉트인 8층에는 40여 개 명품, 해외패션, 주얼리, 시계 브랜드가 들어섰다. 9층에는 국내외 290여 개 화장품, 잡화, 액세서리 브랜드가 입점한 뷰티&패션관, 10층에는 한류 문화 전파를 위한 국내 브랜드 위주의 라이프스타일관이 들어선다. 황해연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는 "내년 6000~7000억원, 2020년 1조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오픈으로 강남권

주요 면세점을 묶는 투어 코스 등 '면세점 강남 벨트' 시대가 열릴 지 관심이 쏠린다. 면세점 밀집도는 관광객의 쇼핑지역 선택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꼽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번에 돌아보고 쇼핑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모여 있어야 여행자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풍부한 관광 인프라가 있는 입지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근에 코엑스와 같은 전시·컨벤션

센터부터 특급호텔, 카지노, 도심공항터미널, 한류 테마공간 SM타운 등이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이 쇼핑부터 투어까지 한번에 할 수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은 이동하기 쉬운 거리에 모여 있어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이번에 형성된 강남 벨트가 기존 강북 벨트(롯데 명동본점·신라 장충점·신세계 명동점)의 독주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y@donga.com

## 한눈으로 보는 경제

31일

코스피지수	2029.69	▲	+15.00
코스닥지수	648.67	▲	+4.53
일 낮케이 지수	2만1920.46	▲	+463.17
중상하이 종합	2602.78	▲	+34.74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39	▲	+0.008
환율 (원·달러)	1139.60	▲	+0.4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4596.38	▼	-197.90

## “17조5700억 영업이익, 반도체 효자” 삼성전자 3분기 역대급 실적 기록

삼성전자가 3분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10월31일 발표된 경영 실적에서 삼성전자는 매출 65조4600억원, 영업이익의 17조57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5.5% 늘었고 영업이익은 20.9%나 증가했다. 매출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특히 영업이익은 분기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의 증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이 견인했다. 반도체는 견조한 메모리 시황과 함께 수율과 생산성이 향상됐다. 디스플레이 사업도 플렉시블 OLED 패널의 가동률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가전 부문 역시 QLED와 초대형 등 프리미엄TV 판매가 늘었다. 스마트폰 부문은 판매량이 지난 분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프로모션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익이 감소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사업이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실적이 둔화되고, 스마트폰은 중저가 라인업 강화로 판매량은 늘지만 마케팅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비해 가전 부문은 연말 성수를 맞아 실적 향상을 기대했고, 디스플레이 부문도 OLED 수요가 지속되면서 견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근 기자

## “UHD 영화를 30초만에”...10기가 인터넷 시대

### KT, 1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서 상용화

국내 유선 인터넷에 10기가 시대가 열렸다. KT는 10월3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일부터 국내 최초로 '10기가 인터넷' 전국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6대 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비스된다. 2014년 유선인터넷 속도를 100Mbps에서 1Gbps로 끌어올린 지 4년여 만이다.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는 업로드와 다운로드 모두 최고 10Gbps를 제공한다. 33GB 용량 UHD 영화를 내려 받을 때 100Mbps는 45분, 1Gbps는 4분30초가 걸리는데 반해 10Gbps는 30초면 된다.

KT의 10기가 인터넷은 10기가(10Gbps), 5기가(5Gbps), 2.5기가(2.5Gbps) 3가지 상품으로 구성했다. 3년 약정할인을 받

으면 4만4000~8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TV를 결합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10기가와 5기가 이용자에게는 와이파이 공유기 2대를 기본 제공한다. 회선당 접속 가능 PC는 5기가는 3대, 10기가는 5대다.

업계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로 UHD 1인 방송은 물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엔터테인먼트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IoT)이나 클라우드 기반 혁신 서비스의 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차세대 이동통신 5G의 전국망 조기 구축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 밑바탕도 될 것이라든 KT 측 설명이다.

한편 KT는 이달 말에는 최고 1.7Gbps 속도의 10기가 와이파이도 출시한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 공인신고로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공인신고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용 써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인신고 2건을 접수해 경찰과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사는 거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A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

의뢰 사건의 경우 B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B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했으며 불법사례비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권익위는 공인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정욱 기자 sadzoo@donga.com

## 포카리스웨트, WKBL 공식음료 후원

동아오츠카는 1일 WKBL(한국여자농구연맹) 공식음료 후원 체결식을 가진다. 3일 개막하는 2018-2019 여자프로농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3시즌 동안 선수들에게 음료와 스포츠타일 등 각종 용품을 지원한

다. WKBL에서 진행되는 유소년 농구 캠프 및 대회를 새롭게 후원, 여자농구 인재 육성에도 참여한다.

원성열 기자



## 교육·퍼즐

###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전략 설명회

###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 공인중개사 전망과 자격증 취득 비밀, 코엑스에서 확인하라!

자녀 교육부터 내 집 마련 등 쟁쟁해야 할 재무 이벤트가 많은 요즘 세대에 비해 퇴직 이후의 시간은 길게만 느껴진다. 정년을 다 채워도 40년은 더 살아야 하기에 쌓고 저축하는 형태의 노후 대비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매년 가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수만 명이 몰리며 문전성시를 이룬다. 올해 응시인원 역시 33만8943명으로 작년도 30만5316명에 비해 3만 3627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결코 만만하 볼 시험이 아니다. 매년 다수의 응시자가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면서 그 난이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계산 문제까지 속속 등장해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재검토 해달라'는 글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이에 에듀윌은 내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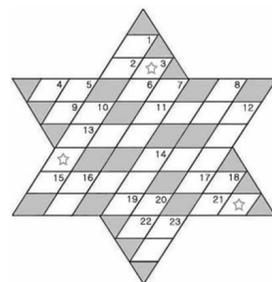
한 '합격전략 설명회'를 오는 11월4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1부에서 3부까지 진행되는데 '공인중개사의 전망과 자격증 취득의 숨은 비밀', '2019년 출제경향 및 효율적 학습법', '합격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격 법칙', '상황별 맞춤 학습 커리큘럼 및 전략', '경품 추첨 및 교수 간담회', '1:1 학습 상담' 등으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강연자로는 부동산학개론의 이영방 교수, 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임선정 교수, 에듀윌 합격전략 연구소의 김윤희 소장이 나선다. 또한 행사 참석자에게는 다양한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 날말문제



■ 가로 열쇠 02. 어떤 기관이나 단체 안에서 불건을 파는 작은 가게. 04. 음식에 양념·식료품·향신료 등을 넣어 맛이 더 나게 함. 06. 먹고 남은 밥. 09. 막히지 않고 잘 통함. 11. 항공기를 타고 다니면서 뜨고 내리게 할 수 있는 넓은 감편과 격납고 및 수리 설비를 고루 갖춘 큰

군함. 13. 좋은 운수를 만난 사람. 14. 부모나 보호자의 곁을 떠나 일 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 15. 바라는 대로 되어 마음이 흡족함. "지○의○" 17. 희로애락의 정이 없음. 19.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 21. 뽕나무의 열매. 22.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 세로 열쇠 01. 물건 따위를 사들임. 03. 잠잠은 태도. 05. 소리 없이 빗나가 웃는 웃음. 07. 기성세대나 기존의 권위에 대들거나 반대하는 사람. 08. 전투할 때 탄알이나 포탄의 파편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쇠나 파이버 섬유로 만든 모자. 10. 특정 지역이나 시간에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일체 금하는 일. 12. 혼인 때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함을 지고 가는 사람.

## 날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 날말을 모두 풀 다음 ☆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이름이 됩니다.

